

전남광주 통합과제 ‘출범 준비’서 ‘실질 통합’으로 재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시 제시한 법·조직·전산체계 구축 중심의 행정통합 과제를 정책과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통합 과제로 재편했다.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 출범 한 달 동안 ‘행정통합 재설계’를 추진해 행정통합 후속조치, 정책통합, 사회통합, 정부협력 등 4대 부문 아래 9대 과제와 20개 세부과제를 재구성했다.

통합 출범 전에는 제도적 기반 구축, 행정 운영체계 통합, 행정인프라 정비, 행정 서비스·대외소통 강화,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5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했다.

세부과제 수는 각지만 출범을 위한 행정 체계 전환에서 종전 광주·전남의 정책과

제도를 하나로 합치고 권역 간 갈등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재설계의 무게중심을 옮겼다.

행정통합 후속조치 분야에서는 자치법규와 위원회, 기금·특별회계, 행정시스템, 안내표지판, 공부대장 등을 정비한다. 자치법규 2454건 가운데 784건은 정비를 마쳤으며 잔여 1670건은 연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유사·중복 위원회 272개 중 시급한 74개는 즉시 통합하고 나머지 198개는 단계적으로 합친다.

기금과 특별회계도 내년 1월까지 순차적으로 통합한다.

자체 행정시스템 188종 중 72종은 통합

5대 분야 20개→4대 부문·9대 과제·20개 세부과제 재설계

정책통합 이달 말 윤곽…상생협약·특별법 개정 연내 추진

또는 데이터베이스 전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정비했으며, 도로 지명과 통합 상징체계 확정되면 내년 6월까지 후속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유사·출자·출연기관 25곳은 기관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직 통합안을 마련한다. 중앙부처 권한이양 44건 중 정부 지원

이 필요할 31건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지원 위원회를 통해 인력과 재정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책통합 분야에서는 종전 광주·전남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비교·분석해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범 전 정점 시책 148건을 분석한 데 이어 오는 13일까지 전 실국 정책을 비교하고 21일까지 통합 방향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8월 말 핵심 결과를 보고한다.

지역별로 다른 사업은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차등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서비스 수혜 수준은 낮추지 않기로 했다.

특히 재정 부담이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문화관광, 복지, 대중교통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7년도 신규 통합정책도 발굴한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상생협력 시스템 구축을 위해 9월 상생협력 기본조례 제정, 10월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11월 종합계획 수립, 12월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이후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출범 이후 예상되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

비한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출범 100일까지 통합특별시 상징체계도 구축한다.

정부협력 분야에서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테스크포스(TF)와 자문위를 꾸려 정부지원위원회와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기관, 추가 특례 반영도를 협의할 계획이다.

민형배 시장은 “7월 1일 출범은 하나 된 의형, 통합특별시라는 큰 그릇을 만든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전남광주 역량을 한데 모아 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며 “신뢰와 참여를 기반으로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행안부 장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2025년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제도 개선, 활성화 노력, 정책 이행 성과, 체감도를 평가한다. 광역·시·군·구 4개 평가 군별로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우수·보통·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우수공무원 선발, 인센티브(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3일 등) 부여, 적극행정 마일리지 운영 등을 통해 공직자의 참여를 독려하고, 적극행정 워크숍과 제도 홍보를 병행해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특히 ‘남약 신도시 약취 발생 해소’를 요청하는 적극행정 국민신청 민원 관련 관계기관 협업, 현장 대응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실천을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적극행정위원회 발표심사를 도입해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선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인센티브 적용 대상 공무원을 확대 선발하고 민원 해결 실적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적립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폭염 대응 농업지역 예찰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4일 농업지역을 찾아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열을 생수를 배부하고, 폭염 시간대 야외작업 자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휴식 등 폭염 대응수칙을 안내하는 등 농업인 안전관리를 위한 폭염 대응 활동을 강화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8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나주 명하쪽빛마을’

전남광주특별시 선정…“농촌 활력 불어넣는 마을공동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나주 문평면 명하쪽빛마을을 8월의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했다.

명하쪽빛마을은 국가무형문화재 염색장인 고 윤병은 선생의 전통 쪽염색 기법을 5대째 계승하며 한국 쪽염색의 역사와 장인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마을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쪽염색이라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로 발전시켰다.

이를 통해 마을 소득을 높이는 것은 물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색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은 생숙 수확부터 천연염

색의 모든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체험을 통해 직접 제작한 스카프, 베개 등을 인근 영아원에 기증하며 지역사회의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체험객들은 농업과 전통문화, 교육이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

주민 주도형 섬 정책 ‘대통령 표창’

‘가고 싶은 섬 가꾸기’…방문객 4배·귀어귀촌 439명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민 주도형 섬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의 ‘제7회 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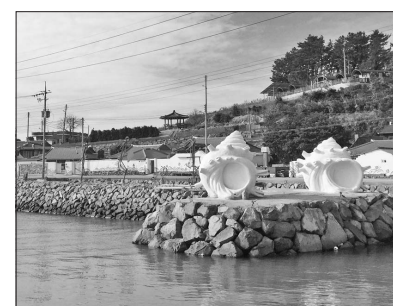
이번 표창은 통합특별시가 2015년부터 주민 주도형 섬 정책을 추진하며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섬 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섬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통합특별시는 주민 주도형 대표 사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로 섬 고유의 자연·생태·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주민 소득 증대와 관광 활성화를 추진했다.

사업 추진 이후 대상 섬 방문객은 2014년 27만명에서 2025년 114만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귀어·귀촌으로 307가구 439명이 유입되는 등 섬 지역의 활력 회복에도 기여했다.

주민대학을 428회 운영하고 섬코디네이터 50명을 양성하는 등 섬 주민이 지역 발전을 직접 이끌 역량도 높였다. 섬코디네이터는 섬의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발굴해 여행·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방문객 안내와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공동체 법인 24개의 설립도 지원했다. 이들 법인은 펜션과 카페·식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연홍도)

당 운영,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수익 사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사업 종료 뒤에도 섬별 맞춤형 컨설팅과 섬코디네이터의 현장 활동을 지원해 주민 주도의 운영체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통·물류·주거·의료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꾸준히 확대했다. 여객선 운임과 생필품 물류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덜고, 주택 개보수와 비대면 진료 지원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썼다.

박태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섬해양정책과장은 “주민 주도의 섬 발전 정책을 확대하고, 섬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섬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아카데미홀 대관

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광남일보 사옥 1층)

스크린 및 음향 최고시설 완비

교육연수, 연회, 세미나 등

시설 사용인원(최대) : 150명

대관료 : 오전 10만원/시간 · 오후 20만원/시간
※ 오전·오후 이용시간은 별도 문의

